전남교육청 6년전 폐기 법안 교육감協 제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보건교사 확충 없이 업무 경감
노조 측 반발로 뒤늦게 철회
"보건 전문인력 확보가 우선"

전남교육청이 수년 전 폐기된 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가 노조 측 반발로 뒤늦게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11일로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가 공무원노조가 거세게 항의하자, 이를 서둘러 철회했다.

해당 안건은 과도한 보건교사의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교사 직무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해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보건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교사 업무 문제는 전국 최저의 보건교사 수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안건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빼내 다른 행정직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편법적인 내용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에도 발의했다가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폐기됐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2018년 조직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유발했으며 현재까지도 일선 학교에서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다.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특히 이렇게 예민한 문제임에도 교육감은 물론 비서실조차 해당 안건이 협의회에 제출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 법안이 제출 배포되면서 서울과 충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노조가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항의성명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자료를 내고 "도 교육청이 당사자간 합의를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5월 중순까지 보건교사와 일반직공무원 간 보건업무 TF를 운영했던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고 반발했다.

전남교육청노조는 지난 달 14일 보건업무 관련 TF에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는 보건교사 업무경감보다 더 열악하고 시급한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전문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교직원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교육현장이 또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관련자 문책, 구성원간 갈등 야기 중단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말 기준 전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9.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보건지도 같은 보건교사 직무외에도 각종 현황보고와 가정통신문 발송 등 행정업무까지 한 명의 보건교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6·15남북공동선언 15일까지 교육주간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평화가 온다'를 슬로건으로 학교별 특색에 맞는 계기 교육을 위해 기념 교육주간(8~15일)을 운영한다.

교육주간에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초·중·고등학교는 평화통일 교육 특강, 기념 현수막 게시, SNS를 이용한 '평화가 온다' 챌린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카드 보드게임을 개발해 초·중학교에 배포한다.

통일 카드 보드게임은 4명이 한 모둠이 돼 총 8 모둠(32명)이 동시에 참여해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한민족의 역사와 북한 바로 알기 등을 퀴즈와 주사위 게임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 교육청은 광주통일관의 협조를 얻어 오는 15일까지 교육청 1층 로비에서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전시회도 개최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광주교육은 6·15정신을 계승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공동 번영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북구 고액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 광주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10일 광주 북구청 로비에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의 전당'이 설치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10년만에 3배 이상 증가

고령운전자 사고 2배 이상 증가
광주경찰 면허증 자진반납 독려

광주경찰이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을 독려키로 했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매년 9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고 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 2010년 한해 346건 발생했던 데서 지난 2018년 910건, 2019년 99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식자재 마트 2층 주차장에서 80대 운전자가 주차장 조립식 패널 벽을 뚫고 마트 직원 휴게실로 돌진, 마트 직원 5명이 다쳤다.

사고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급증도 원인으로, 최근 10년간(2010~2019년) 65세 이상 운전자는 광주의 경우 지난 2010년 3만675명에서 2019년 8만3678명으로 늘었다.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1만2589명(2010년)에서 4만2764명(2019년)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광주 경찰은 운전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면허증 자진 반납을 독려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시와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과기원, 과학기술연구 역량 '세계 톱4'

교수 1인당 논물 피인용수 4위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10일(한국시각) 발표한 '2020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에서 세계 4위로 평가됐다.

지스트는 전 세계 5546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QS 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지스트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세계 2위', 2017년과 2018년에는 '세계 3위', 2019년에 '세계 5위' 를 차지하였으며 13년째 국내 1위 자리를 지키며 세계 정상급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는 대학 연구 역량의 양과 질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해당 대학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이 관련 분야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인용될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연구 성과의 영향력이 크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학계 평판', '졸업생 평판'과 같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주관성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평가 항목과 달리, 대학의 평균적인 연구 실적과 해당 분야의 다른 연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평가 항목으로 꼽힌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단' 확대

광주시 북구는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난해부터 용봉동·매곡동·오치동 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운영했던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단'을 확대·운영한다.

'북구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단'은 강력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동행대원이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지난달 빛고을 50+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20여 명을 안전동행단으로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안전동행단은 2인 1조로 편성돼 평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활동하며 신청인이 사전 또는 당일 동행요청 30분전까지 만날 장소를 정하면 동행대원이 마중 나와 신청인의 집 앞까지 함께한다.

안전동행은 5개 거점지구대(우산지구대, 일곡지구대, 용봉지구대, 문흥지구대, 동운지구대)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희망복지과(062-410-6423)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12개 시민사회단체 플루이드 애도 성명

트럼프 대통령 사과·반성 촉구

윤한봉 기념사업회 등 광주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미국흑인 남성 플루이드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지역 시민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미국경찰의 무릎에 8분 46초 동안 목을 짓눌려 질식사한 흑인 플로이드의 죽음을 명백한 인종 차별이 부른 비극이자, 동시에 미국의 공권력이 자행한 인간 존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1980년 5월 이곳 광주에서도 청각장애자 김경철 씨가 계엄군의 폭력 앞에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었고, 1987년 1월 박종철 군도 치안본부 고문실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부르르 떨다 숨졌다"면서 "'권력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끝까지 싸우자'고 다짐했던 오월 영령의 뒤를 따라, 광주 시민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거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정의로운 시위에 연대하며 동참하고자 한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단체들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해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이 애도와 사죄는커녕 비인도적 처사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폭도'라고 몰아붙이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지금 당장 시위대를 향한 비인도적, 폭력적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년 전 이곳 한국에서도 계엄군의 학살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몰아 부친 자가 있었다. 그 자처럼 지금 트럼프는 시위대를 향하여 '폭도'라는 막말을 퍼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서는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가 윤한봉 기념사업회에 요청해 광주지역 12개 단체들의 지지 연대 서명을 받아 작성됐다. NAKASEC는 고 윤한봉 선생이 미국에 망명해 오월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조직한 '재미 한청련'의 후신으로 미국에서 해외 이주민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옅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